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925호

“한국교회, ‘이 땅에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 품어야”

탈북민 정착 지원하는 한정협, ‘2025 사역보고 및 후원감사’ 행사 개최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앙생활을 지원하는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이사장 정성길 장로, 사무총장 박용균 목사, 이하 한정협)가 9일 오후 서울 새문안교회(담임 이상학 목사)에서 ‘2025 사역보고 및 후원감사’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980년 대성공사 신우회로부터 시작한 한정협은 지난 2002년 10월 ‘북한 동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라는 구호로 창립했다. 이후 탈북민 선교, 청소년 교육지원, 교정선교, 조찬기도회, 의료 지원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오고 있다.

한정협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및 하나님 내에서 선교활동을 진행하며 정착지 인근 교회와 탈북민 가정의 자매결연을 통해 신앙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탈북민 사역자들을 적극 양성해 통일시대 대내적인 북한 복음화를 준비하고 있다. 한정협은 정기적으로 탈북민 사역자들을 위한 영성수련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며, 북한 복음화를 이끌어 갈 목회자 양성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하나님 교육생을 위한 도시문화 생활 체험, 취업학업의료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실제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정 목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누구보다 먼저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전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며 “하나님은 우리가 재물을 죄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그것을 사용해 좋은 터를 쌓기를 바라신다. 교회들이 이 땅에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들을 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예측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나라에 복음통일을 허락해주시겠지”이라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가 된 탈북민들을 품어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이들을 품지 못하고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품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병순 목사(한국교회연합 공동회장)

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한정협 사무



한국기독교탈북민정착지원협의회가 사역보고와 후원감사 행사를 개최했다. ©김진영 기자



참석자들이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총장인 박용균 목사가 사역보고를 했다. 한정협의 다양한 탈북민 지원 사역에 대해 보고한 박 목사는 “다시 한 번 한정협의 사역을 돌아보고 점검해 내년에도 더 힘차게 사명을 감당하려 한다”며 “지금까지 지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해주신 교회와 후원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장종한 장로(이사)가 사회를 본 가운데 ‘감사의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사회자인 장 장로의 경과보고 후 한정협 이사장인 정성길 장로가 한정협을 후원하고 있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경향교회, 명성교회, 새문안교회, 선한목자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의료선교부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평통 사무처장), 김진영 전 육군대장(한미자유인보정책센터 회장), 두상달 장로(한국기독교인연합회 명예총재)가 차례로 전했다.

먼저 태영호 전 의원은 “한정협의 사역보고서를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탈북민들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그들을 지원하고 예수님이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탈북민들의 남한 정착을 돋우고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는 좋은 단체로 계속해서 사역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김진영 전 육군대장은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민들이 잘사는 것을 보면 북한 인민들도 용기를 얻어 그들의 인권을 스스로 찾고자 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한정협이 해야 할 사역이다. 탈북민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두상달 장로는 “한정협의 사역은 정말 필요하고 귀한 일”이라며 “탈북민들은 통일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통일은 분명히 올텐데 그 때까지 계속해서 탈북민들의 정착을 돋우는 사역을 펼쳐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서울대학교 OB 남성중창단, 정요한 집사(마이올린), 김예나 집사(피아노), 한국예비역기독군인연합친양대의 특별공연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김진영 기자

「북한기독교역사사전」 출판 감사예배… “통일 이후 북한선교 토대 마련”

9일 충현교에서 열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장 한규무, 이사장 이덕주)는 9일 오후 서울 강남 소재 충현교회(담임목사 한규상) 제1교육관에서 「북한기독교역사사전」 출판 감사예배를 드렸다.

연구소는 “기독교는 해방 이전 북한에서 가장 교세가 큰 종교였으며, 해방 이후 북한 기독교인들은 종교뿐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며 “기독교는 과거와 현재 모두 남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종교이며, 통일 이후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도 다른 종교보다 월등하다. 따라서 향후 남북 교류 및 탈북민 선교, 통일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기독교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수록한 전문적인 사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분단 이후 월남한 1세대 기독교인들의 교향 교회에 대한 기억과 경험이 유실되지 않도록 정리 보존하고, 이들의 역사를 한국교회는 물론 미래 통일세대에게 전달함으로써 통일 이후 북한 선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연구소는 “해방과 분단 80주년을 맞는 올해, 2015년부터 진행해온 「북한기독교역사사전」 편찬사업이 10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에는 북한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 학교, 병원 등 각종 기관과 북한 출신 기독교인을 포함해 총



이만열 위원장이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1만1,172여 항목이 수록됐다. 분량은 크라운판 기준 총 2,800여 쪽, 2권 1세트로 구성됐다.

연구소는 “분단이 여전히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북한교회의 유산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취지에서 사전을 집필했고, 이번 발간이 한국기독교사에서 북한지역 기독교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돋우고, 탈북민 선교의 자료로도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교회 재건을 소

망하는 마음으로 출판 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을 설명했다.

사전의 항목 선정 원칙으로는 △모든 항목은 1차 자료의 근거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했고 △지역은 한반도의 암록강과 두만강 이남에서 DMZ 이북 지역으로 한정, 다만 해방 후 월남민교회, 남한에서의 활동하는 북한선교 및 통일운동 단체, 1990년대 이후 탈북민 선교단체 포함하며 △시기는 한국 개신교 초기부터 현재까지이며 △교파는 북한지역에 설립되었던 모든 개신교 교파 등을 포함한다.

연구소는 접필 원칙에 대해 “서술 방식은 평이한 간결체로 하되 주관적인 평가나 해석은 지양하고 객관적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일반인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단어와 문제를 사용하며 가능한 초교파적 입장을 취한다”며 “특정 경우가 아닐 경우 주어를 반복하거나 지속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시기는 1870~1960년 북한지역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1950년대 이후 남한에서 재건한 교회의 경우는 1960년 이전까지를 중심적으로 기술하고, 그 이후는 간략하게 서술한다. 또한, 인물의 경우 북한에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정, 다만 해방 후 월남민교회, 남한에서의 활동하는 북한선교 및 통일운동 단체, 1990년대 이후 탈북민 선교단체 포함하며 △시기는 한국 개신교 초기부터 현재까지이며 △교파는 북한지역에 설립되었던 모든 개신교 교파 등을 포함한다.

출판 감사예배는 한규무 소장(광주대 교수)의 사회로, 한규상 목사(충현교회 담임)의 환영사, 김홍수 교수(목원대 명예교수)의 기도, 이만열 위원장(북한기독교역사사전 간행위원회)의 감사인사, 메시지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환영사를 전한 한규상 목사는 “(사전 내용에서) 장대현교회 부분에 관심이 많이 갔다. 왜냐하면 저의 친할머니께서 장대현교회 멤버이셨기 때문”이라며 “이 밖에도 사전에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출판 감사예배를 충현교회에서 진행될 수 있어 감사드리며, 끝나는 시

간까지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감사인사를 전한 이만열 위원장은 “사전을 계획한 것은 10여 년 전이다. 통일을 기원하며 북한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했지만, 조만간 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에 더 늦기 전에 역사를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며 “연구소는 남북 나눔 운동의 지원을 받아 10여 년 전에 북한기독교역사사전 편찬을 시작해, 내한선교사 사전을 먼저 편찬했고, 이후 북한기독교역사사전을 오늘에 이르러 출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 등이 ‘사도바울에게 특별한 책’(제413)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고, 예배는 이덕주 이사장(편집위원장), 본 연구소 이사장(의사)의 사전 편찬 경과보고, 감사패와 사전 증정, 광고, 이제정 전통일부 장관의 축복기도 순서로 마무리 됐다.

장지동 기자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도료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도어락/손잡이



라텍스 장갑



생활용 도료/코팅액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